하계올림픽 유치에 임실 종합사격장 '주목'

임실군, 최종 유치될 경우 사격경기 준비 만전
시설 노후화 인한 누수 등 전반적 개보수 시급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된 가운데 임실군에 있는 종합사격장도 주목받고 있다.

향후 올림픽 최종도시로 선정될 경우 임실군 소재 종합사격장에서 올림픽 대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임실군이 수탁운영 중인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은 올림픽 유치 시 사격경기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시설 개보수 필요성 등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종합사격장은 지난해 파리올림픽에서 당시 임실군청 소속이었던 김예지 선수가 은메달을 땄던 것을 비롯해 국내외 대회에서 임실군청 소속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각종 사격대회를 개최하면서 전국적으로 명성 있는 사격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사격장이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화로 인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올림픽 유치 국내 도시로 선정되고, 앞으로 큰 대회를 치르려면 사격장 시설 전반에 대한 환경개선이 절실해지고 있다.

현재 클레이사격장의 경우 2개 사로만 운영되어 원활한 경기 진행이 어렵고, 선수와 관중의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의 높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구형 표적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선수 훈련 및 대회 진행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기에 신형 전자 표적 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된 가운데 임실군에 있는 종합사격장도 주목받고 있다. 〈사진=임실군청 제공〉

무엇보다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잦은 누수로 방수를 포함한 시설 전반의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원활한 경기 운영과 훈련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군은 올림픽 최종 개최 도시로 대한민국 전북 전주가 선정되기까지 군 차원의 관심과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숙박·교통·관광 인프라 확충 및 지역민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북이 글로벌 스포츠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선 서울과의 국내 도시 경쟁에서도 임실군은 전북의 올림픽 유치 선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월 14일 대한사격연맹 회장과 부회장을 직접 면담해 전북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표심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바 있다.

전북은 앞으로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인도 아마다바드, 튀르키예 이스탄불, 칠레 산티아고 등 10여 개 국가와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심 민 군수는 "우리 전북이 2036 하계올림픽 최종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임실군에 있는 종합사격장의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고, 전 세계인에게 임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응원합니다"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 올림픽 체험존 확대 운영 4개 종목에 사이클 추가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이 '2036 전북 하계올림픽' 유치를 응원하며 어린이들이 직접 올림픽 종목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존을 확대 운영한다.

전북자치도는 2층 '어린이 올림픽' 체험존에 사이클 종목을 추가해 운영을 확대하고, 2025년 상반기 중 체험관 잔디광장에 올림픽 유치 염원을 담은 '올림픽 테마 홍보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올해 1월부터 기존 체험 시설과 연계해 '어린이 올림픽' 체험존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암벽타기·양궁·골프·역도 등 4개 종목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사이클 종목 추가를 통해 어린이들이 더욱 다양한 올림픽 종목을 직접 경험하며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림픽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창의체험관을 찾는 어린이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전북이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를 추진 중임을 알리고, 유치 염원을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중 체험관 잔디광장에 '올림픽 테마 홍보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광영 전북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장은 "하계올림픽 종목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올림픽 유치 홍보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와 창의 체험을 접목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오감만족과 창의력을 키워주고 과학적 마인드를 함양시켜 주기 위한 전국 최고 수준의 복합체험문화 공간으로 매년 18만 여명의 가족 단위 내방객들이 찾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 정읍서 힘찬 레이스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 정읍동학마라톤대회 성료

정읍동학마라톤이 6년 만에 다시 열리며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지난 9일 열린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 정읍동학마라톤대회에는 5,000여명의 참가자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이번 대회는 풀코스, 하프코스, 10㎞, 5㎞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특히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대회가 다시 열리며 전국 각지에서 참가자들이 몰렸다.

정읍시체육회와 정읍시육상연맹이 주관하고 정읍시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지방 마라톤 대회에서는 드물게 풀코스를 도입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를 출발해 상교동주민센터, 교암교차로, 송학삼거리, 내장산 우화정을 반환하는 코스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내장산의 천혜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레이스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전국에서 모인 마라톤 동호인들과 시민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질주했고,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함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민들은 교통통제에 적극 협조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지난 9일 열린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 정읍동학마라톤대회에는 5000여명의 참가자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이학수 시장은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과 시민들이 함께해 더욱 뜻깊은 대회가 됐다"며 "교통통제에 협조해준 시민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마라톤을 통해 건강한 생활과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광주의 정용원이 풀코스 남자 청년부 1위(2시간 44분 52초), 광주의 안규석이 남자 중년부 1위(2시간 39분 42초), 이광열이 남자 장년부 1위(2시간 54분 4초), 제주의 문이경미가 여자 청년부 1위(3시간 16분 27초), 대전의 이가연이 여자 장년부 1위(3시간 3분 4초)를 차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 환영"

"카누슬라럼 경기장 활용 기대"

고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의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개최 후보지 선정을 축하하며, 최종 개최지 선정을 위한 응원에 나섰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스포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고창군은 "전북이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최종 선정될 경우, 고창종합테마파크내 들어설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이 올림픽 경기장으로 활용될 수 있어 기대감이 크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현재 국내 유일의 국제규격 카누슬라럼 경기장 조성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창종합테마파크에 들어설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은 올림픽 개최시 카누종목 경기는 물론, 다양한 수상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AI 조감도). 〈사진=고창군청 제공〉

이번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가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지역 주민들도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고창군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될 경우,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아니라 스포츠 인프라의 강화와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개최 후보 선정은 고창군에도 큰 기회다"며,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을 통해 올림픽 성공 개최에 기여하고, 고창군은 물론 전북특별자치도가 국제적인 스포츠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